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골드만삭스를 초청해 '미국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제조업, 수요 줄어 8개월째 축소
- Bloomberg: 미 일자리 삭감은 고용시장의 경고 신호
- WSJ: 트럼프의 대폭적인 관세 이후 물가는 예상보다 낮아

[오일]

- WSJ: OPEC과 동맹국, 석유 생산 확대 후 일시 중단 합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엔비디아 칩 공급을 위해 OpenAI와 380억 달러 계약 체결
- WSJ: Whole Foods의 아마존화

[미국 경제]

Bloomberg:US Manufacturing Shrinks for Eighth Month on Sluggish Dem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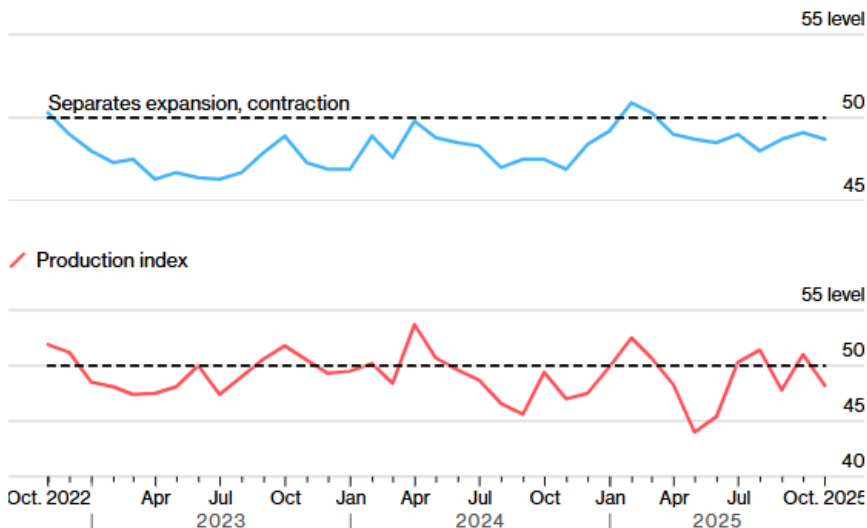
미 제조업, 수요 줄어 8개월째 축소

- 10월 미 제조 활동이 수요 및 생산 감소로 8개월째 위축된 상태다.
- ISM(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제조 지수는 오늘 발표에 따르면 0.4 포인트 줄어든 48.7을 기록했다. 50 미만은 위축을 말한다.
- 생산지수는 2.8 포인트 하락한 48.2로 지난 3개월 중 두번째로 크게 하락한 수치다.
- 고용지수도 9개월째 위축됐는데 물론 9월보다는 위축세가 약간 늦춰졌다.

US Manufacturing Remains Stuck in Reverse

Purchasing managers index shows eighth month of shrinking activity

— Purchasing managers index



Sourc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Bloomberg 기사

Bloomberg: A Wave of US Layoffs Flash Early Warning Sign for Job Market**미 일자리 삭감은 고용시장의 경고 신호**

- 스타벅스, 타겟, 아마존 등이 최근 큰 규모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회사의 최근 일자리 축소가 중요한 노동시장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관련 조사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 일자리는 거의 95만개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이래 연초부터 지금까지 비교한 수치로는 가장 높은 해를 기록했다.
- 최근의 고용 삭감의 규모를 살펴보면 매니저들은 AI와 자동화로 인해 더 이상 해고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인력을 잡아두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회사들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노동 비용을 줄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How the U.S. Economy Has Defied Doomsday Predictions on Tariffs
트럼프의 대폭적인 관세 이후 물가는 예상보다 낮아

- 9월 연간 미 인플레이션은 3%로 나타났는데 관세가 물가 상승에 제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연방 재무부의 관세 총 수입을 보면 연간 5천억달러에서 1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기업들은 높은 수익 마진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관세를 부과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WSJ 기사

[오일]**WSJ: OPEC and Allies Agree to Boost Oil Production, Then Pause**
OPEC과 동맹국, 석유 생산 확대 후 일시 중단 합의

- OPEC+는 12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13만 7,000 배럴까지 증가할 계획이다. 다만 계절적 수요를 이유로 내년 초 3개월 동안은 생산량 증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OPEC의 결정이 가격 방어, 시장점유율 회복, 회원국 간 단결 유지 등을 의도한 '계산된 일시 중단'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OPEC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유가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감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국, 브라질 등에 빼앗긴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공급 과잉과 더불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유가는 5년 이래 최저치에 근접했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추가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Amazon Inks \$38 Billion Deal With OpenAI for Nvidia Chips
아마존, 엔비디아 칩 공급을 위해 OpenAI와 380억 달러 계약 체결**

- 아마존 AWS는 직접 Nvidia GPU를 구매해 클라우드 서버에 장착해왔는데 최근 이를 OpenAI에게 제공키했다. 이와 관련 OpenAI와 38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은 ChatGPT가 사용자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거나, 차세대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엔비디아의 GB200, GB300 AI 가속기를 포함해 수십만개의 칩을 배포할 예정이다.
- 이는 AI 시대 경쟁에서 고전해 온 아마존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편 OpenAI는 AI를 구동하기 위해 칩과 데이터 센터에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 Azure에 대한 추가 투자를 약속했으며, 오라클과 최대 4.5GW 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에 합의하는 등 대규모 AI 지출 계획을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The Amazonification of Whole Foods Is Finally Here—Bring On the Doritos
Whole Foods의 아마존화**

- 아마존은 Whole Foods 특유의 유기농 이미지와 아마존의 대규모 유통전략을 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Whole Foods를 포함한 모든 식료품 브랜드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식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고객이 요청하면 'ShopBots' 로봇이 펩시 같은 일반 브랜드 제품을 가져다 주거나, Amazon Grocery라는 공간을 통해 Kraft Mac&Cheese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등 매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 Whole Foods의 기업 구조도 아마존에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내년부터 Whole Foods 본사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아마존 소속으로 전환되며 최근 본사 인력 감축도 단행되고 있다.
- 한편 Whole Foods 내부에서는 아마존식 효율 중심 문화가 퍼지면서, 기존의 품질 및 직원 중심 문화를 해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판매 단위, 처리 속도 등 수치 중심의 평가 체계로 인해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기농 중심의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